

1.5만곳 방역 조사... 서울시민 70% 긴급생활비 찬성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 “긴급생활비 800만 가구에 도움” 잠시멈춤 중단하기엔 상황 엄중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질병에 맞닥뜨린 취약계층을 돕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16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대출과 소득이 급감한 가구들이 굉장히 많다”며 “서울시가 제안한 것처럼 재난 긴급생활비를 이번 추경에 포함시키면 800만 가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위소득 이하 998만 가구 중 기존 사회복지제도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800만 가구에 지역사랑상품권 60만원 어치를 지급하는 것이다.

박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타격을 입은 분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재난 긴급생활비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가 이달 12~13일 만 18세 이상



박원순 시장이 16일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71.4%가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자는 제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79.5%는 재난 긴급생활비가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시장은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이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번 추경에 재난 긴급생활비를 꼭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시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25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2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52명은 완치돼 퇴원했다.

시가 파악한 구로구 콜센터 관련 전국 확진자는 129명으로 서울 거주 확진자 79명, 경기 32명, 인천 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건물 직원, 가족, 지인 등 관련자 1115명을 검사한 결과다.

박 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확실히 꺾이고 있지만 폭발적인 증가가 진정됐다는 것일 뿐 방심할 때가 아니다”며 “구로 콜센터, 동대문 PC방 등 집단 감염 발생 사례는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방역 사각지대로 남아 있

다”고 우려했다.

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전체 직원에 대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진행하고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밀접 접촉자를 확인했다. 현재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음성판정을 받았더라도 능동 감시를 계속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 시장은 “새롭게 발생한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가족 등으로 이미 확보한 접촉자 관리 범위 안에 속하는 분들”이라며 “여기에 콜센터 퇴직자 등으로 관리범위를 확대해 구로구 집단 감염과 관련해 불똥이 튼 부분도 확실하게 잡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콜센터와 같이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점검 현황도 공개했다. 이달 11~13일 콜센터 업체 527곳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99%에 달하는 523개 업체가 방역을 마친 상태였고 구로구 집단 감염 이후 98%의 업체가 마스크 착용, 칸막이 높이조절,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다고 시는 발표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12일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공무원 1221명을 긴급 투입해 PC방, 노래방, 클럽, 플라텍 등 감염병 고위험 사업장 1만4671곳을 전수 조사 중이다. 박 시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전히 33%의 교회가 집회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확진자가 교회 예배에 갔다가 감염시킨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종교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관련해 박 시장은 “해외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으로 인한 역유입이 불안 요인이고 국내 수도권 중심의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2일부터 2주간 진행된 잠시멈춤을 중단하기에는 상황이 엄중하다”고 설명했다.

시가잠시멈춤 캠페인 기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승객수가 34% 줄었고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는 평일 평균 172만명에서 130만명으로 42만명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마포구, 경로식당 급식비 올리고 대체식 지원

서울 마포구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경로식당 대체식’ 지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제공하는 경로식당의 급식비 단가를 기존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해 긴급 예산 2100만원을 투입한다. 마포 지역 내 경로식당 7곳을 이용하는 어르신 912명에게 균형 잡힌 대체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어르신들은 주 6회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대신 주 2~3회만 식당을 방문해 포장된 대체식을 받아가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게 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월 10일부터 경로식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간편 대체식을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 나온 후속 대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라며 “경로식당의 급식비 단가 기준 상향 조정은 간편 대체식이 조리식 식사에 비해 영양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마포구 경로식당이 조리식 대신 대체식 식사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마포구

나온 대책이다”고 말했다. 구는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급식비 3500원 외에 1개월분 추가 예산 2100만원을 긴급히 확보하고 1인당 급식비를 4500원으로 1000원 올렸다.

이와 함께 구는 나홀로 식사로 인한 노인들의 사회적 고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안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돌봄중단 장애인·어르신에 직접 방문

장보기, 생필품 대리구매 지원 돌봄 인력, 개인 보호구 착용 맞벌이 가정에 아동 긴급돌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방문·입소 긴급돌봄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자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자가격리됐거나 기타 사유로 이용하던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방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식사나 청소와 같은 일상생활을 돕고 장보기, 생필품 대리구매 등 외부활동을 지원한다. 이용 희망자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가 필요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서울시가 지정한 격리시설인 ‘인재개발원’, ‘서

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 입소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가 격리생활시설에 함께 입소해 이들을 보살핀다. 돌봄 인력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소독과 같은 감염방지 조치 후 식사도움, 목욕 등 내부생활을 지원한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민간서비스 기관이나 유관기관(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서울요양보호사협회)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은 어린이집 휴원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맞벌이 가정에 아동 긴급돌봄도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중소·벤처기업 R&D에 415억

창업지원시설 입주 기업 중 15곳 지원규모 기존 5000만원서 2배 ↑ 전문가와 매칭...기술적 애로 해결

서울시는 올해 중소·벤처기업의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과 상용화 지원에 415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46개 창업지원 시설에 입주한 기업 중 15곳을 선정해 제품 기술 연구개발 비용으로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지원 규모는 기존 5000만원에서 2배 늘렸다.

전문가와 매칭해 기술적 애로를 해결해주는 사업도 벌인다. 캠퍼스타운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100여건에 건당

2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바이오·의료 관련 12개 과제에 최대 5억원, 양재 AI 허브에 총 39억원, G밸리에 20억원 등의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상용화 지원에는 총 77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제품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글로벌챌린지, 서울혁신챌린지 등에 총 164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산업진흥원이나 서울R&D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기술연구원 마스크대란 대응 기술공모

서울기술연구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스크 필터 및 대체기술’ 개발 공모를 진행한다. 16일 밝혔다.

이번 기술공모에서는 ▲MB필터를 대체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필터 개발 ▲기존 마스크 기능을 대체할 신개념 마스크 또는 기술 발굴 등 2가지 도전 과제가 주어진다.

시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연구원은 1차 서면심사, 2차 성능검증,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40 | 해질 / 18:41

3월 17일 (화)
음력 : 2월 23일

수도권 날씨 **2 ~ 13°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1/14, 동두천 1/14, 가평 -1/12, 파주 1/14, 서울 2/13, 양평 0/13, 인천 4/11, 수원 3/12, 용인 3/12, 평택 0/13, 백령도 5/1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